

큰스님 수행한담

“가정과 직장과의 이웃에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⑬

雖先頓悟 煩惱濃厚 習氣堅重
수선돈오 번뇌농후 습기견중
對境而念生情 遇緣而心作對
대경이업념생정 우연이심심작대
被他昏亂 使殺味却寂知常然者
피타혼란 사살매각적지상연자
即借相門定慧 不違對治 均調昏亂
즉자수상문정에 불망대치 균조혼란
以入無爲 即其宜也
이무위 즉기이아

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한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 자재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깨치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悟人分上 雖有對治方便 念念無疑
오인분상 수유대치방편 염념무의
不落污染 日久月深
불락오염 일구월심
自然契合天真妙性 任運寂知
자연契合천진묘성 임운적지
念念攀緣一切境 心心永斷諸煩惱
念念攀緣一切境 心心永斷諸煩惱
염념반연일체경 심심영단제번뇌
不離自性 定慧等持 成就無上菩提
불離自性 定慧等持 成就無上菩提
불리자성 정혜등지 성취무상보리
與前機勝者 更無差別 則隨相門定慧
與前機勝者 更無差別 則隨相門定慧
여전기승자 경무차별 즉수상문정혜
雖是漸修所行 於悟人分上
雖是漸修所行 於悟人分上
수시점기소행 어오인분상
可謂點鐵成金 若知如是
可謂點鐵成金 若知如是
가위점철성금 약지여시

그러나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렵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생각에 감정이 일어나고,
반연을 만날 때마다 마음은 대상을
만들어 혼침과 산란에 빠져서 고요함과
아는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라 수행하는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다스려야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
이 마땅하다.

雖借對治功夫 暫調習氣
수차대치공부 잠조습기
以先頓悟心性本淨 煩惱本空故
이선돈오심성본정 번뇌본공고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생사의 세계에 자재로울 수 없다

即不落漸門劣機 污染修也
즉불락점문열기 오염수야
何者修任悟前 則雖用功不忘
하자수재오 전 즉수용공불망
念念薰修 着着生疑 未能無疑
念念薰修 着着生疑 未能無疑
염념훈수 착착생의 미능무애
如有一物 礙在胸中 不安之相
여유일물 애재홍중 불안지상
常現在前 日久月深 對治功熟
상현재전 일구월심 대치공숙
則身心客塵 恰似輕安 雖復輕安
즉신심객진 흡사경안 雖復輕安
疑根未斷 如石擊岸 猶於生死界
의근미단 여석압초 유어생사계
不得自在 故云 修在悟前 非真修也
부득자재 고운 수재오전 비진수야

則豈以二門定慧
즉기이이문정혜
有先後次第二見之疑乎
유선후차제이견지의호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있지만 생각
생각에 의의 없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히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결합되
어 고요하고 아는 것이 자유롭고, 생
각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
마음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
버리되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
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無
上菩提)를 이루어 앞에 말한 근거가
뛰어난 사람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
다.

상을 따르는 수성문의 선정과 지혜
는 비록 점차로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
람의 입장에서 보면 쇠로 금을 이루는
것이와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안다
면 어찌 자성문(自性門) 수성문(隨相
門) 두 문은 선정과 지혜에 있어서 앞
뒤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의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비움을 깨끗이 때문에 점문의
열등한 근거에 물들은 수행에는 떨어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치기 전의
수행이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
생각에 의하고 닦지만 곳곳에서 의심
을 일으켜 자유롭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불
안한 모습이 항상 앞에 나타난다. 그

덕운스님 (대구 보원사 조실)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
져 있어 인연을 따라 생하기도 하고 멸
하기도 합니다.
즉 인연생기(因緣生起)이니 이것이 있
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
것도 따라서 멸한다는 이치입니다. 여기
서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있음으로써 삼
라만상이 펼쳐지는것이 아니라 나는 아상이
소멸되면 모든 현상도 따라서 소멸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상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된 사람은 곧 연기의 법칙
을 깨달아 응무소주(應無所住)하고 무위
자연(無爲自然)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
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과거를 되
돌아보거나 염매이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
이 흐르듯 살아가니 참으로 대자유인이
라 하겠습니까. <금강경>에서도 미래심
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
在心不可得)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
得)이라 해서 마음은 특정한 순간에 머
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것으
로서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늘마음을
담아서 천진난만(天真爛漫)하기만 합니
다.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조금만 시간
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어울리는 모
습이 인위적인 데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
니다.

<증야합경> 18권에 보면 부처님은 “연
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
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탄탄 항상 존재하며, 여
래는 연기법을 깨달아 해탈을 증득했다”
고 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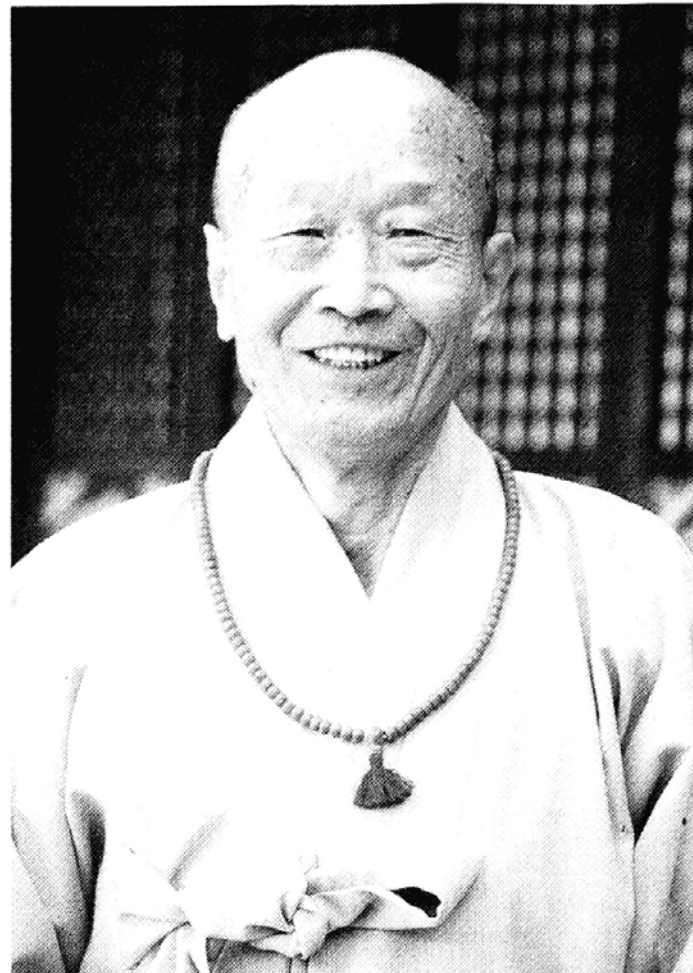
저는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안동 권
씨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
님의 기대가 무척 컸으나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주변에 의존해온 결과
스님이 되어 수행할 팔자라고 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예향 안동에는 유교풍습이
지배적이리라 믿어들을 출가승려로 만든
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
나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듯합니다.

결국 15세에 용담사로 입산하게 되었
습니다. 제가 입산하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가에 몸을 담은
것이냐 태고종에 몸을 담게 된 것이냐
모두 인연법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에 가까운 승려생활도 인연법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 팔만
사천경전도 마음심(心)자 하나로 귀결되
는데 아직도 마음을 제대로 쓸 줄 모르
니 조사스님들을 빗기 송구스러울 따
름이지요. 다만 끊임없이 참구해나갈 따
름입니다. 수행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저절로
중착역에 도달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추구하다보면 오히
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까닭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
지요.

은사이신 반공산스님은 마침 ‘팔공산’
과 명호가 비슷해서 다른 분들이 은사스
님을 칭할 때는 마치 ‘팔공산스님 팔공
산스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들려서 은사
스님이 팔공산을 대표하는 스님처럼 여
겨졌습니다. 스님을 은사로 모신 지 몇

- 1917년 안동 생
29년 안동시 사립화산학교 졸업
33년 안동시 길안면 용담사에서
김영육스님을 은사로 시미계수지
51년 파계사에서 반공산스님을
법사로 건당
53년 7월 파계사 강원 중등과 졸업
99년 3월 선암사에서 법계고시
1급종사 취득
현재 대구 보원사 조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정관념의 잣대로 바라보니
번뇌망상에 빠져 허우적대지요”

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천도재를 지내
기 위해 은사스님께 위패를 써달라고 간
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님은 “나는 쓸
줄 모르니 네가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태껏 잘 써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난감
해 하다가 문득, “앞으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깨달은 것
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지 스승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없으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니
어느 세월이 연기의 도리를 깨치겠습니까?

제가 스님들이 찾아오면 복을 구하기
전에 참회하라고 가르치는데 알게 모르
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은 곧 수행
입니다. 원래 계행이 청정하면 따로 수행
이라고 할만한 게 없습니다.

본심은 원래 청정한데 무명업식에 가
리워서 실체를 보지 못함이 수행을 추
구하기에 앞서 참회하고 계행을 청정히
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
습니다.

인제선사는 말하기를 “도를 닦으려고
하면 닦아지지 않고 닦던 소견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

한 생각을 풀이켜 한 물건도 없게 하면
범음이 오기 전에 무명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번뇌를 끊기 위해 번뇌에 매달려
서는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망상의 악순

근본불교 여래선(위빠싸나) 수련법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위빠싸나』 참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법(法) 성품(性品)을 경험하여
험떡거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연을 지녀지이다.
선재! 선재! 선재!

사주추명학
아부태산 전집 23권
운명학의 금지탐
아부태산 전집 드디어 번역 출간되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운명을 알 때 재난과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새 흐르는 물 말없는 바위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지혜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완전 초보에서 60살에 영어회화가 슈창해진다??
AMT AUTO MEMORY TAPE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M.T. PRO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발성구조로 변화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발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ROGRAM입니다.